

‘최고의 전반기’ 페퍼저축은행, 창단 첫 봄배구 나설까

2024-2025 V-리그 전반기 결산

장소연 감독 체제로 복병 탈바꿈 18경기 만에 역대 최다 6승 달성 19점으로 역대 최다 승점도 경신 주전급 부상·체력 관리가 새 과제

프로배구가 정규리그의 반환점을 돈 가운데 장소연 감독 체제로 새출발한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가 탈바꿈에 성공하며 달라진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전반기 만에 역대 최다 승리와 승점을 모두 잡아준 페퍼저축은행은 내진기에 창단 첫 봄배구에도 도전한다는 각오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달 29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염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와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 3라운드 6차전에서 3-2(22-25, 25-23, 19-25, 26-24, 15-12)로 폴세트 점전 끝에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페퍼저축은행은 이번 시즌 전반기를 6승 12패(승점 19)로 마무리하며 5위에 자리 잡았고,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5승 13패·승점 15)와 GS칼텍스 서울Kixx(1승 17패·승점 6)를 제쳤다.

이로써 페퍼저축은행은 창단 이후 최다 승리와 승점 기록을 모두 새로 썼다. 종전 기록은 2022-2023시즌과 2023-2024시즌 5승과 2023-2024시즌 17점으로 페퍼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 선수단이 지난달 29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와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 3라운드 6차전에서 폴세트 점전 끝 승리를 거둔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배구연맹 제공

저축은행은 이를 모두 전반기에 넘여왔다.

이번 시즌 개막에 앞서 페퍼저축은행의 냉정한 목표는 탈바꿈이었다. 페퍼저축은행은 자유 계약(FA)으로 리베로 한다해를 영입하고, 세터 이고은과 매트레이드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에서 세터 이원정을 데려오는 등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했다.

또 아시아쿼터와 외국인 선수 모두 전체 1순위 행운을 안으면서 미들 블로커 장

위(중국)와 아포짓 스파이커 바르바라 자비치(크로아티아)까지 품었음에도 선수층이 얇은 것이 막내 구단의 현실이었다.

실제로 페퍼저축은행은 1라운드에서 1승 5패로 승점 4점을 획득하는데 그치면서 주춤한 출발을 보였다. 개막전에서 한국도로공사에 첫아웃 승리를 거두면서 내 시즌 만에 처음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렸으나 정관장에 폴세트 점전 끝 패배하며 승점 획득에 만족해야 했고, 이후 내리네 경기를 승점 없이 패배했다.

주춤한 분위기에 장 감독은 강수를 뒀다. 어깨 부상을 호소하며 두 경기 출장에 그친 자비치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 외국인 선수로 아포짓 스파이커 테일러 프리카노(미국)를 영입했다.

테일러가 빠르게 한국 무대에 적응하면서 페퍼저축은행은 2라운드 들어 반등에 성공했다. 한국도로공사와 정관장 레드스파크스에 연승을 달리고 GS칼텍스를 꺾는 등 3승 3패로 승점 8점을 적립했다.

페퍼저축은행은 3라운드에서도 차곡차

곡 승점을 쌓았다. GS칼텍스와 현대건설을 꺾고, 한국도로공사와 정관장을 상대로는 폴세트 점전을 펼치는 등 2승 4패로 승점 7점을 챙겼다.

페퍼저축은행이 차분하게 승점을 쌓아 나가면서 창단 첫 봄배구의 희망도 여전히 살아 있다.

봄배구 마지막 선인 4위 IBK기업은행 알토스(11승 7패·승점 31)와 격차는 승점 12점으로 후반기에 충분히 추격을 노려볼 수 있는 수준이다.

또 창단 첫 전 구단 상대 승리도 노리고 있다. 페퍼저축은행은 한국도로공사와 GS칼텍스에 2승, 정관장과 현대건설에 1승씩을 챙겼는데 흥국생명, IBK기업은행과도 세 차례 맞대결이 남아 있다.

후반기의 가장 큰 과제는 선수들의 부상과 체력 관리다. 페퍼저축은행은 이원정과 박사랑이 경쟁을 펼치고 있는 세터를 제외하면 테일러와 한다해, 장위, 박정아, 이한비, 하혜진으로 주전이 굳어져 있다. 이에림과 박경현, 박은서가 백업을 맡고 있지만 타 구단에 비해 가용 폭이 좁다.

이한비와 이원정에게는 부상 이슈가 있다. 이한비는 발가락 통증을 잡고 경기 출전 중으로 시즌 내내 부상을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고, 이원정도 몸 상태가 온전치 않아 전반기를 조기 마감한 상황이지만 이들이 건강을 회복한다면 확실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김성한 “높은 인지도 도움” 박병석 “풍부한 경험 강점”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 2파전

제13대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레이스에 김성한 CMB광주방송 해설위원과 박병석 전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전무이사가 뛰어들어 2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다.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지난달 27일과 28일 회장 후보자 등록을 접수한 결과 김성한 해설위원과 박병석 전 전무이사 두 명의 후보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호 추천 결과 김성한 해설위원이 1번, 박병석 전 전무이사가 2번을 부여받았으며 두 후보는 지난달 29일부터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선거 운동 기간은 오는 5일까지로 투표는 오는 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북구 무등야구장 회의실에서 실시된다.

김성한 후보는 공약으로 △선수 등록비 폐지 △무등야구장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ABS) 도입 △체육 특기자 배정 확대 △전용 구장 확보 등을 제시했다.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후원을 유치하고 협조를 얻어내 지역 야구와 소프트볼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군산에서 태어났지만 해태 타이거즈와 KIA 타이거즈를 거치면서 선수와 코치, 감독, 해설위원까지 했다. 얼굴이 알려진 만큼 현안에 대해 관심을 유도하기가 쉽다”며 “제 고향이나 마찬가지로



김성한 CMB광주방송 해설위원(왼쪽)과 박병석 전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전무이사가 제13대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각 후보 제공

인 광주를 위해 야구 인생 마지막으로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 내 도리”라고 밝혔다.

박병석 후보는 공약으로 △신규 야구장 건립 △초·중·고 전국 대회 유치 △초·중·고 국제 교류전 추진 △소년체육대회·전국체육대회 광주 대표 후원 유치 △대회 정산 내역 공개 △학교·실업 소프트볼 창단을 꼽았다. 13년여의 행정 경험을 통해 파악한 야구인들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는 포부다.

박 후보는 “전무이사를 역임하면서 협회 행정을 책임졌기 때문에 현장의 애로 사항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다. 회장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해결할 수 있다”며 “침체된 상황의 지역 선수 프로 지명률을 높이고, 숙원인 신규 야구장 건립도 절실하다.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발전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한규빈 기자

‘김현석 체제’ 전남드래곤즈, 체질 개선 박차

호난·레안드로 등 5명 영입

김현석 신임 감독 체제로 1부리그 승격에 재도전하는 전남드래곤즈가 강도 높은 체질 개선에 돌입했다.

프로축구 K리그2 전남드래곤즈는 겨울 이적 시장 이를 쟁인 2일까지 공격수 호난, 이동현, 레안드로와 수비수 노동건, 장효준을 영입했다.

호난과 레안드로는 발디비아와 함께 브라질 삼각편대를 구축할 전망이다. 호난은 2023년 서울이랜드FC 소속으로 K리그2에서 활약했으며 2024년에는 중국 갑급 리그(2부리그) 연변 톱딩 FC로 이적해 아시아 무대 경험을 쌓았다. 호난의 K리그 통산 성적은 29경기에서 7득점과 2도움이다.

레안드로는 2020-2021년 서울이랜드 FC 소속으로 활약하며 2020시즌 K리그



노동건 레안드로

2베스트 11(공격수 부문)을 수상하는 등 가치를 입증한 뒤 2022년 같은 리그의 대전하나시티즌으로 이적해 1부리그 승격을 견인했다. 2023-2024년 대전하나시티즌 소속으로 K리그1을 누볐고, K리그 통산 135경기에서 26득점과 26도움을 기록했다.

이동현은 광양 토박이인 측면 공격수로 취미반인 리틀드래곤즈로 축구를 시작해 전남 U-12(광양제철남초)와 U-15(광

양제철중), U-18(광양제철고)을 모두 거친 성골 유스타. 전남의 우선 지명을 받고 성관대에 진학한 그는 2023-2024년 45경기에서 9득점으로 맹활약했고, 2학년을 마친 뒤 프로 무대에 조기 진출하게 됐다.

노동건과 장효준은 전도유망한 중앙 수비수와 측면 수비수다. 노동건은 마산공고-예원예술대-동의대를 거쳐 K3리그 부산교통공사축구단과 FC목포에서 활약한 뒤 지난해 K리그1 대전하나시티즌에 입단하며 프로 무대에 진출했다.

장효준은 울산HDFC U-18(현대고)과 동국대를 거쳐 2022년 K리그1 성남FC에 입단하며 프로 무대에 입성했다. 강등 이후에도 K리그2에서 성남FC 소속으로 활약한 그는 K리그 통산 31경기에서 1득점과 1도움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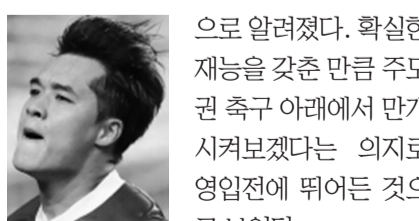
한규빈 기자

‘본격 영입 시작’ 광주FC, 박정인으로 공격 강화

고교 무대 호령한 유망 자원

이정호 감독과 동행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새 시즌 준비에 돌입한 광주FC가 박정인(사진)을 영입하며 허울과 이견희의 공백을 메웠다.

복수의 축구계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가 공격수 박정인의 영입을 마쳤다. 박정인은 이미 광주 선수단에 합류해 3일 시작하는 태국 전지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박정인은 이 감독이 직접 선택한 자원



으로 알려졌다. 확실한 재능을 갖춘 만큼 주도권 축구 아래에서 만개 시켜보겠다는 의지로 영입전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박정인은 천안초와 울산HDFC U-15(현대중)-U-18(현대고)를 거쳐 2019년 고졸 루키로 프로 무대에 입성했다. 그는 왕중왕전과 K리그 챔피언십을 통틀어 세 차례 득점왕을 차지하는 등 일찌감치 고

교 무대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울산 소속으로 K리그1 두 시즌간 13경기에서 1도움에 그친 박정인은 2021년 K리그2 부산아이파크로 이적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그는 부산 유니폼을 입고 64경기에서 출전해 16득점과 4도움을 올리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았다.

2023시즌 전반기를 마친 뒤 서울이랜드FC로 이적한 박정인은 30경기에서 2득점에 그치며 아쉬움을 남겼다. 그럼에도 2024시즌 전반기를 마친 뒤 K리그1 대전하나시티즌에 임대되며 1부리그에 복귀했고, 6경기에서 1득점을 올렸다.

한규빈 기자